

해남, RE100 공급...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속도’

산이면·마산면 일원 900MW 규모 태양광 단지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후 연말까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해남군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RE100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산이면·마산면 일원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의리 일대 461ha에 태양광 300MW, 산이면 부동리 865 일원 803ha에 태양광 600MW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두 지역에는 총 900MW 규모에 2조 2500억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며, 생산되는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

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조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와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연계를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주민 전체 의견을 모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발족한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해남군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RE100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산이면 부동지구 민관협의회 6차 회의 모습.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갖고, 사업명인 ‘해남군 산이 부동햇살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운영규정을 확정된 바 있다.

협의회는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하면

서 2차회의는 12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6차례 회의가 진행된 ‘해남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할 ‘해남 산이·마산 집적화단지 사업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달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해남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손명도 해남군 부군수는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창구다”며 “사업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세밀하게 듣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약 2조 5000억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가 사실상 확정됐고, 오픈AI·SK그룹 AI 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유력시되면서 전력기반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2030년까지 5.4GW 규모 태양광과 송·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 전용 변전소를 갖춘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을 구축해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청정산업 및 AI데이터센터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암 대불산단에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군, 126억 국비 확보...내년 정부 예산에 25억 반영

영암군이 대불산단 등 지역 산업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을 유치했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가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영암군이 제안한 총 1339억원 규모의 5개 핵심사업이 반영됐다.

이중 총사업비 126억원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은 전액 국비로 지어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25억원이 반영됐다.

영암군은 조선업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 등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해 체험교육 위주의 안전교육장을 건립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 수차례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을 찾아 대불국가산업단지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에 건의해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은 내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건립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게 하겠다”며 “산업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오른쪽 세 번째)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위원회 목토르 우마로프 의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에너지 전환과 신도시 개발 분야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나주, 우즈베키스탄과 재생에너지 기반 신도시 개발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지역기업 참여 요청 등 집중 논의

나주시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에너지 전환과 신도시 개발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에서 외곽급 협의를 진행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국제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최근 우즈베

키스탄 타슈켄트 리치파크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경제위원회 목토르 우마로프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에너지와 도시개발 관련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

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재생에너지 자원, 에너지신산업 실증 기반, 산업단지 조성 경험 등 강점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청정에너지 정책과 스마트 신도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품질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갖춘 나주시의 경험이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도시, 특히 청정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초 전남을 방문해 현장 견학과 함께 협력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 골목형상점가 4개소 추가 지정

지역 소상공인 지원 기반 강화...생활상권 회복 기대

담양군은 올해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7월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데 이어, 11월에는 쓰담길을 지정했다. 이어 최근 죽녹원 북문, 프로방스, 국수거리 일대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며 총 다섯 곳

의 골목형상점가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담양읍 중심 시가지지를 비롯해 담주리, 윤교리, 학동리, 객사리 등 생활상권 전반에 고르게 분포한다.

담양중앙 상점가는 4만227㎡ 규모에 224개 점포가 밀집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쓰담길과 죽녹원 북문은 각

각 48개와 16개 점포, 프로방스와 국수거리 상점가에는 80여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군은 은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군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할인 혜택과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상권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철민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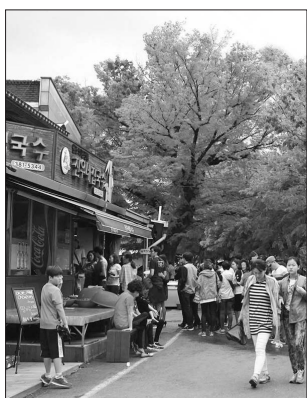
쓰담길



죽녹원



프로방스



국수거리

광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1일까지...기간 내 사용 독려

광양시가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이 연말까지임을 안내하며, 기한 내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올해 광양시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하고, 8억 4300만원을 투입해 4216명의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혜택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50명 증가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체감 혜택이 한층 커졌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광양시 내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등 30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오는 31일 이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현금으로의 교환이나 이월·전환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카드 잔액은 이월·전환되지 않으므로 올해 안에 꼭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행복 건네는 군청 민원실 크리스마스 이벤트

곡성군, 22~24일 진행...“군민에 작은 선물”

곡성군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복을 건네는 민원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순간 따뜻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미니 포토존, 마음을 나누는 응원 메시지 보드, 아이들이 행정서비스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 민원체험 교실’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작은 힐링 음악회를 통해 대기시간

에 대한 지루함을 달래고, 직원과 방문 민원인이 함께 참여하는 친절 캠페인도 더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벤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곡성군은 지난 9일 사전 직원 워크숍을 열어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직원 힐링과 민원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박정렬 기자 hobul@

화순, 폭염 대응 ‘최우수’ 지자체 선정

민·관 협력 기반 대응체계 구축...특별교부세 2억 확보

화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에서 폭염 대응 분야 최우수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올해 최초로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노력과 수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화순군은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체계 구축과 주민 체감형 폭염 대응 정책 추진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내 드문축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문축구단이 보유한 드론과 침단장비를 활용해 폭염취약 시간대에 논밭 등 고온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했다.

또 야외 작업자 발견 시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야외 작업 자제를 요청해 폭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노래교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더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폭염취약 시간대 실내 활동을 유도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남산공원에는 양심생수 냉장고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 폭염으로 인한 탈수 예방에도 힘썼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